

“광주 초·중 통폐합 중단없이 추진”

장항국 교육감 간부회의서 “반대 설득해 진행” 입장 확인

‘중앙초→서석초’·‘풍암고 여고 전환’ 등... 학부모 반응 주목

장항국 광주시교육감이 초·중학교 통폐합(광주일보 1월 11일 1·6면)을 통해 적정 규모 학교를 육성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수십차례의 설명회에도 통폐합 대상 학교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대책위원회가 꾸러지고 반대 시위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광주 교육감이 재차 중단없는 추진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향후 해당 학부모·동창회의 행보가 주목된다.

◇“학부모 반발, 설득해서 추진한다”=장 교육감은 24일 열린 광주시교육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초·중학교 통폐합과 관련, “학부모와 동창회가 반발하고 있지만 학생 수 감소, 통학여건, 학생배치 여건 등을 감안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하고 있는 학부모·동창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진행하겠다는 얘기다.

예를 들면 통폐합 중단점, 통폐합 시 새로 구입하는 교복·체육복 지원 방안, 통학 안전 대책, 첨단중·전곡중 여학생의 신설 여고 우선 배정 방안 등을 설명하며 설득하겠다는 게 교육청 입장이다.

광주교육청은 지난 3월 이후 지금까지 통폐합 대상 학교를 상대로 33차례의 설명회를 가진 데 이어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와 건의사항 등을 수렴한 뒤 대안을 마련, 다음달 설명회에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폐지대상 학교인 삼정초의 경우 24일 광주교육청 앞에서 피켓을 들고 반대 시위를 벌였고 중앙초와 전곡중은 반대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광주시의원들을 상대로 통폐합 중단 활동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어떻게 바뀌나=교육청은 지난 1월 학령 인구 감소 및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중앙초를 서석초로 통합(2018년) ▲북구 삼정초를 울곡초, 두암초로 통합(2018년) ▲상무·치평중을 치평중으로 통합(2019년) ▲전곡·첨단중을 첨단중으로 통합(2018년)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교육청은 아울러 전곡중 폐교부지를 24학급 규모의 가정 전곡여고(2019년 3월 개교)로 활용하는 한편, 남녀공학인 풍암고를 2018년 3월 여고(28학급)로 전환하고 광일고와 임곡중의 통합 운영도 검토하고 있다.

광주교육청은 이와 통·폐합 대상인 삼정초에는 12학급 규모의 직업교육특성화고 신설을, 상무중 부지에는 특수학교나 대안교육 특성화고를 설립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으며 광주중앙초는 광주교육사박물관으로 활용하는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김옥자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은 이와관련, “학교 통·폐합 문제의 경우 서두르지 말고 학생·학부모·지역사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세월호 상단 수색용 구멍 3곳 뚫어

선수→선미→우현→좌현 입체수색 본격화...미수습자 수습 기대감

미수습자 9명의 흔적을 찾기 위한 세월호 선내수색이 1주일째를 맞았다. 지난 18일 수색계획 발표와 함께 처음으로 선내에 진입한 뒤 작업 구역이 넓어지고 양방향 수색도 본격화됐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와 코리아셀베지는 24일 오전 8시부터 A 데크(4층) 1개, B 데크(3층) 2개 등 우현 중간 부분 객실 진입을 위한 3개의 진출입구 확보 작업을 벌였다. 왼쪽으로 드러누운 세월호 선체를 봤을 때 공에서 아래인 좌현으로 향해가는 작업이다. 아래쪽인 좌현에서는 선수 부분 A 데크 1~3번, B 데크 1번 진출입구를 이용한 진수 수거와 지장물 제거 작업이 이어졌다. A 데크 수색 구역은 단원고 남학생반이, B 데크는 일반인 승객이 머물렀던 곳이다.

선수에서 선미 중간 방향(좌→우)에 이어 우현에서 좌현 방향(위→아래)의 입체수색이 본격화되면서 미수습자 수습 소식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진도 침몰해역 수중 수색은 40개 구역 가운데 27 곳을 마쳤다. 일반 구역 수색을 마치면 객실이 있는 선미 부분이 가라앉았던 2개 특별구역 수색이 시작된다. 인양과 선내·해저수색을 통해 발견된 유류품은 모두 216점으로 이 가운데 16점은 소유자 또는 가족에게 인계됐다.

한편, 세월호 인양과 수색 과정에서는 지난 23일 까지 모두 146점의 뺏조각이 나왔다. 특히 23일 하루에만 뺏조각 83점이 무더기로 발견돼 그 배경에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뺏조각은 24일에도 추가로 나오고 있다.

세월호 수색 현장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발견된 뺏조각은 형태나 크기에서 사람의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한다. 모두 외견상 닭이나 돼지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현장 안팎에서는 한꺼번에 많은 뼈가 나온 이유에 대한 추측이 분분하다. 무더기로 뺏조각이 나온 곳은 우현, 즉 왼쪽으로 누운 상태로 거지된 현재 상태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다. 애초 세월호 내부에 실려있었던 게 아니라 외부에서 세월호로 뺏조각이 들어간 것 아니냐는 추정도 현장에서는 나온다. 인양 중 해수면 위에서 작업자들이 먹은 식재료에서 나온 뼈들이 버려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출항 전 애완동물이나 식재료인 고기가 실렸던 것 아니냐는 추정도 있다. 수습팀은 이유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수거된 뺏조각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져 DNA 등 정밀 감식이 진행 중이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kwangju.co.kr

49초만에 금은방 2억여치 텅 도둑

24일 새벽 4시 24분께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한 금은방에 남성 2명이 강화 유리로 된 출입문을 벽돌로 부수고 침입, 불과 49초만에 귀금속 2억여원어치를 훔쳐 달아났다.

이들은 잠금장치가 설치된 진열장을 망치로 깨뜨린 뒤 순식간에 진열장 4칸에 들어있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피해 업주는 2억1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도난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했고, 경찰은 CCTV를 확인한 결과 범행에 단 49초가 걸렸다고 전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용의자들이 호리호리한 체격에 흰색 후드티, 모자, 마스크, 장갑을 착용했으며 10대 후반~20대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범행 직후 금은방에서 500여m까지 뛰어가 택시를 타고 달아난 것으로 보고 이들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

무더운 5월...비 잦은 6·7월

오는 5월 광주·전남지역은 고온현상으로 덮였고, 6·7월엔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다.

24일 광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2016년 5~7월 기상전망'에 따르면 5월과 6월에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되고, 7월에는 평년과 비슷한 기온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강수량은 5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고, 6·7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년의 월 평균기온은 5월 17.4도, 6월 21.3도, 7월 24.7도이다. 강수량은 각각 119.8mm, 206.5mm, 275.3mm다.

5월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고, 따뜻한 남서류 유입과 일사로 고온 현상을 보일 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6·7월의 경우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 영향으로 다소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6월 민주항쟁 30년 광주전남행사위원회’가 24일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출범식을 열고 올해 행사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5·18 광장서 되새기는 ‘6월 항쟁 30년’

광주전남행사위원회 공식 출범

1987명 시·도민 추진위원 모집

6월 민주항쟁 30주년을 앞두고 민주주의 정신을 되새기고 기념하기 위해 ‘6월 민주항쟁 30년 광주전남행사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6월 민주항쟁 30년 광주전남행사위원회는 24일 오전 11시 광주시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올해 기념식 내용과 기념사업 추진 방향 등을 설명했다.

이날 광주전남행사위원회는 출범선언문을 통해서 “호남은 늘 역사의 고비에 영감과 실존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다”며 “다시 열린 민주주의 세상을 통해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나가자”고 밝혔다.

광주전남행사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지선 스

님, 배종렬 광주민주화운동동지회 고문 등이 참여하며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가 명예 상임위원장으로 구성됐다.

이날 출범식에서 6월 민주항쟁 광주전남행사위원회는 오는 6월10일 오후 6시 금남로 특설무대에서 ‘6월 민주항쟁 30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주항쟁의 시발점 역할을 한 박종철 고문치사와 전두환 대통령의 간선제 호헌조치에 반대하여 광장에 나온 시민들의 국민대행진을 재현, 광주역부터 금남로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행진에 이어 7~10일이 참여하는 시민합창제와 마을 기념행사, 강연회 등도 열릴 계획이다.

광주전남행사위원회는 상징적 숫자인 1987명의 시·도민 추진위원을 모집한다. 모집된 추진인원들은 행사 후원자로서 6·10 항쟁 시국선언문 작성에 직접 참여해 기념식 당일 시국선언문을 낭독한다. /김한영기자 young@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48 해질 19:13 달돋이 05:05 달질 17:46

미세먼지 '안심'

대체로 흐리고 밤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12/23	보성	차차	호려저	비	8/21			
목포	차차	호려저	비	11/19	순천	가끔	호리고	비	13/23
여수	가끔	호리고	비	13/21	영광	차차	호려저	비	10/21
나주	차차	호려저	비	8/23	진도	차차	호려저	비	8/20
완도	차차	호려저	비	10/21	전주	가끔	호리고	비	13/22
구례	차차	호려저	비	9/22	군산	차차	호려저	비	11/19
강진	차차	호려저	비	10/23	남원	차차	호려저	비	10/22
해남	차차	호려저	비	8/22	홍산도	차차	호려저	비	9/17
장성	차차	호려저	비	9/22					

◇바다 날씨

서해	남부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앞바다	남동~남	0.5~1.0	남동~남	0.5		
면바다	남동~남	0.5~1.5	남동~남	0.5~1.5		
남해	서부	앞바다(동)	남동~남	0.5~1.0	남동~남	0.5~1.0
		면바다(서)	남동~남	1.0~2.0	남동~남	1.0~2.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6:28	01:01
	18:49	13:22
여수	01:58	08:20
	14:21	20:41

◇주간 날씨

26(수)	27(목)	28(금)	29(토)	30(일)	5/1(월)	2(화)
☁	☀	☁	☀	☀	☀	☀
10/17	8/20	8/22	10/24	11/25	13/23	12/24

◇생활지수

- 식중독: 주의
- 자외선: 보통
- 피부질환: 보통

한사람 한사람의 행복을 잇다

MG새마을금고보험은
폭 넓고 다양한 생명 손해보험 상품들로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G새마을금고